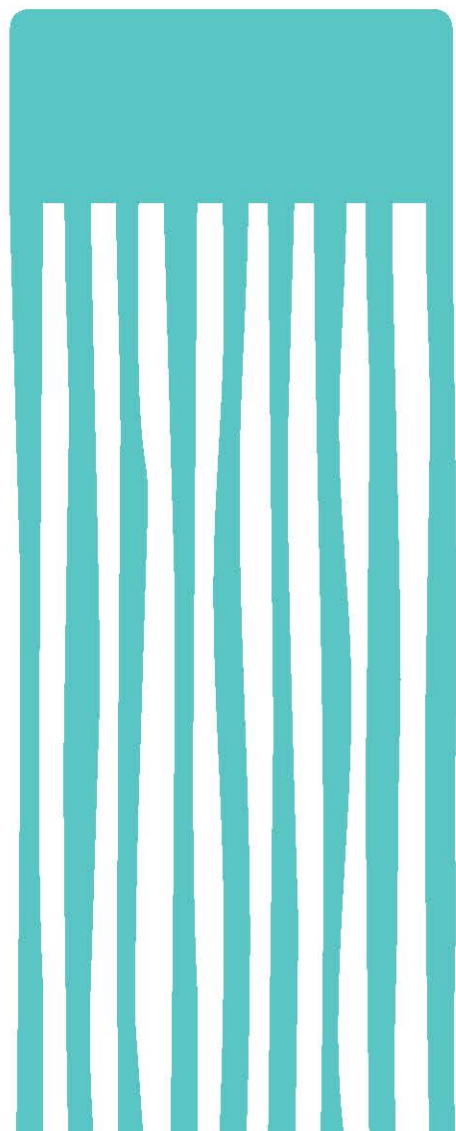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D



정답 및 해설

신사고

민현식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1) 국어의 변천과 발전

① 국어의 변천 / ② 한국어의 언어 활력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1~017쪽

- 01 (1) ○ (2) ○ (3) ○ (4) ○ (5) ○ (6) ×
- 02 ① 03 ③ 04 ①
- 05 (1) ○ (2) × (3) ○ (4) ○ (5) ○
- 06 ① 07 ③ 08 -시-/-사-
- 09 (1) ○ (2) ○ (3) ○ (4) × (5) ○ (6) ○
- 10 ③ 11 ① 12 인구, 경제, 정치, 문화
- 13 (1) × (2) ○ (3) ○ (4) ○ (5) ×
- 14 ④ 15 ⑤ 16 언어 활력

- 01 (6) ④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 국어보다 컸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한자어에 밀려 잘 쓰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고유어가 대부분 현대 국어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역사성과 국어의 변천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국어)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03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인 ‘뜻을’에서도 모음 조화 현상은 지켜지고 있다. ‘쁘들’을 ‘뜻을’과 비교하면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 ‘ㅃ’(음운상 특징)과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표기상 특징)를 확인할 수 있다.
- 04 ④은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 중 ‘이동’에 해당한다. ①은 의미의 이동이 아닌, 의미의 확장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 05 (2) ⑥을 보면 중세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는 ‘-음/-음’이 주로 사용되었고, ‘-기’는 활발하게 쓰이지 못했다고 하였다.
- 06 ‘노미’는 명사 ‘놈’ + 주격 조사 ‘이’의 형태이므로 명사형 어미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부메’는 ‘쁘-’+명사형 어미 ‘-음’+‘에’의 형태이다. ③ ‘베’는 ‘바’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 07 받-(어간)+-줍-(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은(관형사형 어미)
 오답 해설 ① 홀-(동사 어간)+-으사-(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오디(종속적 연결 어미) ② 부모(명사)+의(높임 부사격 조사, 객체 높임) ④ 비릇-(동사 어간)+-음(명사 파생 접미사)+이(서술격 조사 어간)+-고(대등적 연결 어미) ⑤ 못-(동사 어간)+-음(명사 파생 접미사)+이(서술격 조사 어간)+-니-(선어말 어미)+-라(평서형 종결 어미)

- 09 (4) 인구 자산은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여러 언어가 아니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수효를 의미한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다.
- 10 이 글은 한국어의 위상과 언어 활력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인 인구 자산, 경제 자산 위주로 객관적인 한국의 상황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11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수와 한국의 높은 경제 수준이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일제 강점기에 문맹률이 높았던 점은 한국어의 위상이나 언어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
- 13 (1)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치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 본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한국어가 아직 국제어는 아니지만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더 큰 언어 활력을 지닌 언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 14 ⑨에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서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 열 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⑧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③에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훈민정음해례본’ 등 열세 개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③ ⑦에서 ‘정치 자산은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⑤ 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5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법률 제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 16 ⑩에서 ‘앞으로도 한국어가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어 사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18쪽

- 02 ‘ㅎ’, ‘ㄷ’, ‘ㅇ’, ‘ㄹ’, ‘ㅇ’ 등과 같은 음운은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다.
- 04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다.
- 05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고 단어의 뜻을 구별했다.
- 06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였다.
- 07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에서 온 외래어가 있었다.
- 10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 ‘이’만 있고 ‘가’는 없었다.



-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 6 ㉔ 7 ㉔ 8 ㉔: 성신, ㉔: 남금(임금) 9 ㉔
- 10 ㉔

- 1 '서르', '뿌메' 등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많다.'를 의미하는 '하다'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변화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3 ㉔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㉔~㉔는 비교의 의미로 쓰였지만, ㉔는 주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 4 '·시·미'의 경우 '·침+이'가 이어 적기된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㉔ '·불·휘'의 경우 ㉔에 해당한다. ㉔ '·내·히'의 경우 '내히+이'가 이어 적기된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내히'는 'ㅎ 중성 체언'으로, 말음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중성 '히'가 드러나지 않다가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존재가 드러난다. ㉔ '·卜年(복년)'의 경우 ㉔에 해당한다. ㉔ '·聖神(성신)'의 경우 ㉔에 해당한다.
- 5 '아·나'는 이어 적기된 형태의 말이 아니다.
오답 해설 ㉔은 '·남+온' ㉔는 '·부+에' ㉔은 '·침+이' ㉔는 '·부+에'가 이어 적기된 것이다.
- 6 '·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㉔ 반모음 '·'로 끝났으므로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로 '이'만 사용되었다. ㉔ '나모'는 모음으로 된 조사와 결합할 때 '·'이 덧생겨 '·남'이 된다. ㉔ ㉔의 '·온'과 ㉔의 '·은'은 모두 보조사의 역할을 한다. ㉔ '우히'는 말음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히'가 드러나지 않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히'가 나타나는 ㅎ 중성 체언이다.
- 7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에서 '에'는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㉔의 '에'는 앞말이 진행 방향이나 장소가 됨을 나타내므로 둘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㉔, ㉔, ㉔ ㉔의 '에'는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며 ㉔는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8 ㉔ '·나·스·샤·도'의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므로 문장의 주어인 '성신'을 높이고 있다. ㉔ '·미·드·니·잇·가'의 '·잇·'은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므로 청자인 '남금'이 높임의 대상이다.
- 9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에는 인구 자산, 경제 자산, 정치 자산, 문화 자산 등이 있다.
- 10 인구 자산은 언어 인구의 수효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가의 인구가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가의 인구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 6 ㉔ 7 ㉔ 8 ㉔ 9 해설 참고 10 ㉔
- 11 ㉔ 12 인구 자산 13 해설 참고

- 1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㉔ '말·쓰미', '뿌·들' 등에서 이어 적기가 사용되고 있다. ㉔ 중세 국어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을 사용하였다. ㉔ '수비'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음 '·(순경음 비음)'를 사용하였고, '말·쓰미'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모음 '·(아래아)'를 사용하였다. ㉔ '뿌·들', '뿌·메'처럼 현대 국어와는 달리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2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하·게', '·가·엿·게'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로 의미가 변하였다.
오답 해설 ㉔ '말·씀'은 중세 국어에서는 '말'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의 말을 높이거나 자기의 말을 낮추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㉔ '·눈'은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 3 '너겨'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 '여겨'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㉔ 동국정운식 표기는 한자어를 표기할 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방법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㉔ 기본형 '·스·못·다'에서 받침 '·ㅍ'을 '·시'로 바꿔서 적었으므로 팔중성법에 따른 표기이다. ㉔ '·배'는 '·바'에 주격 조사 '·'가 결합한 것이다. ㉔ 단어의 첫머리에 '·'과 같은 2개의 자음이 사용되었다.
- 4 중세 국어에서 '어린'은 '어리석은', '노미'는 '사람이', '어엿비'는 '·불·쌍·하·게'라는 의미였다.
- 5 '뿌메'는 '·쌈·에'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오답 해설 ㉔ '·쌈'에 '아'나 '·부·메'로 적은 것은 이어 적기에 해당한다. ㉔ '·ㅍ'이라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㉔, ㉔ 앞말 '·뿌·'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명사형 어미 '·음'을 사용하였다.
- 6 나. '·불·휘' 등 글자 옆의 방점을 통해 중세 국어에 성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꺾(꺾)' 등을 통해 현대와 형태가 다른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부·르·메', '·니·스·샤·도' 등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기·폰', '·부·르·메', '·시·미' 등을 통해 이어 적기가 보편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7 '소'는 '·'나 반모음 '·' 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와 결합해야 한다.
오답 해설 ㉔ '·침'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한다. ㉔ '공·조'는 '·'나 반모음 '·' 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와 결합한다. ㉔ '·달'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한다. ㉔ '·다리'는 '·'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가 생략된다.
- 8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샤·'가 있다.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것은 맞지만, '漢水北(한수북)'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㉔ 자음 '·(반치음)'과 모음 '·(아래아)'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다. ㉔ 현대어 풀이를 볼 때, '남금'하는 '임금이여'이므로 '하'가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잇·'은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9

모범 답안

㉠	는	앞	체언	에	붙어	서	앞	말	을	문	장
의	주어	로	만들	어	주	는	주	격	조	사	이
㉡	는	용언	의	어간	뒤	에	붙어	서	문	장	에
서	들	는	이	를	높	이	는	상	대	높	임
말	어	미	이	다	.						

10 '안'과 '밖'이 합쳐질 때, '안밖'이 아니라 '안팎'이 되는 것은 'ㅎ'이 덧붙여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이다. 즉, '안'이 'ㅎ 중성 체언'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위층'은 '위'와 '층'이 결합된 합성어인데, '층'의 'ㅈ'은 원래 'ㅊ'이기 때문에 'ㅎ 중성 체언'과 무관하다. ③ '툇방'의 '방'은 거센소리가 아니므로 'ㅎ 중성 체언'과 무관하다. ④ '완두콩'은 '완두'와 '콩'이 결합된 합성어인데, '콩'의 'ㄱ'은 원래 'ㅋ'이기 때문에 'ㅎ 중성 체언'과 무관하다. ⑤ '심술꾸러기'는 '심술'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된 파생어이기 때문에 합성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11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언어 활력이 높다. 천연자원과 언어 활력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은 문화 자산 및 인구 자산, ㉡는 경제 자산 및 인구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공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인구 자산이다.

13 모범 답안

한	국	어	의	사	용	인	구	는	약	8	천	만	명
으로	12	위	에	이	른	다	.	또	한	한	국	어	총
력	시	험	의	누	적	응	시	자	수	도	16	0	만
명	을	넓	어	서	인	구	자	산	이	높	은	편	이
우리	나	라	는	세	계	10	대	무	역	대	국	으로	,
경제	자	산	도	높	은	편	이	다	.	우	리	나	라
민주	주	의	지	수	는	전	세	계	16	7	개	국	중
22	위	로	,	정	치	자	산	도	높	다	.	문	화
산	은	세	계	유	산	12	개	,	세	계	기	록	유
산	13	개	등	으로	높	은	편	이	다	.			

(2)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고전과 매체에 드러난 담화 관습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33~035쪽

- 01 (1) ○ (2) ○ (3) ○ (4) ○ (5) ○ (6) × (7) ○
- 02 ② 03 ④ 04 ② 05 재앙, 경계
- 06 (1) ○ (2) × (3) ○ (4) ○ (5) ○
- 07 ③ 08 ④ 09 ⑤

01 (6) 5를 보면,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거짓과 참을 가려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따져 가며 들으면 대화가 중단되거나 심하면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듣기 태도라고 할 수 없다.

02 이 글에서는 옛말이나 고사 등을 제시하며 말을 삼가야 한다는 필자의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03 4에서 '말이 너무 가벼우면 위(威儀)를 잃게 되고, 너무 무거우면 또 거만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였다. 이는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인지 농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04 ㉠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의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① 오비이락(鳥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이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③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④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⑤ 삼고초려(三顧草廬):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06 (2) 1은 거짓말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과거의 담화 관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07 1의 남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여학생에게 친구가 되지는 제안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2의 여자는 적극적으로 사귀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1의 남학생은 소극적이고 2의 여자는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08 1970년대 영화인 1에서 남학생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반면에 2000년대 영화인 2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담화 관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9 2의 여자는 상대 남자에게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말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의 '말은 해야 맞고 고기는 씹어야 맞다.'가 있다.

오답 해설 ①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댄. ② 도둑이 제 발 저러다: 자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 ③ 아는 길도 물어 가랬다: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④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음.

- 04 말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속담이다.
- 08 남을 책망할 때에는 너무 혹독하게 해서 안 된다.
- 11 집안 어른은 간략하고 엄중하게 말해야 한다.
- 15 과거의 담화 관습은 오늘날보다 더 표현에 소극적이었다.

소단원 기본 평가

- 1 ① 2 ① 3 ③
- 4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 말을 조심해야(삼가야) 한다.
- 5 초설 6 ② 7 ④ 8 ④ 9 ④
- 10 ② 11 ④

- 1 옛말을 인용하여 말을 조심히 하고 삼가야 한다고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 2 필자는 말을 적게 하고 조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3 ‘위의’는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를 뜻한다.
 - 6 (가)의 남학생은 (나)의 여자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이다.
 - 7 (가)의 시대적 배경은 1976년이고 (나)의 시대적 배경은 2002년이다. 이를 통해 시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8 (가)와 (나)를 통해 시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를 바탕으로 볼 때, 시대와 상관없이 젊은 세대의 말하기 방식이 직설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9 <보기>는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말은 해야 맞고 고기는 씹어야 맞다.’는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기>의 속담과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 오답 해설**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을 삼가야 함. ②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 ③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뜻. ④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뜻.
- 10 ㉠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선한 사람과 군자 모두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이 군자가 되기 위해서 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11 ‘십필지목(十伐之木)’은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음을 이르는 말로, 말을 적게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또한 전체 글의 맥락과도 맞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호언장담(豪言壯談):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함, 감언이설(甘言利說):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② 도청도설(道聽塗說):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③ 실은 쓰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

소단원 심화 평가

- 1 ⑤ 2 ⑤ 3 ⑤ 4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
- 5 ③ 6 담화 관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7 ⑤
- 8 말을 중요하게 여겨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는 담화 관습이 나타나 있다. 9 해설 참고
- 10 해설 참고

- 1 이 글에서 남들보다 유창하게 말하는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 2 집안 어른은 충후하면서도 간략하고 엄중하게 말해야 한다.
- 3 이 글은 말 자체를 경계하고 삼가라는 내용이다. 가장 먼저 말을 하는 태도는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
- 5 (가)의 남학생은 여학생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반면, (나)의 여자는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7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담화 관습을 따라야 한다. 무조건 과거의 담화 관습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8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말하여 다르고 저렇게 말하여 다르다는 말이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말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또는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9 모범 답안

	< 보기 >	에	나	타	난	담	화	관	습	의	장	점	
은	자	신	을	낮	추	고	상	대	를	높	여	춤	으로
써	상	대	에	대	한	존	중	과	배	려	의	마	음을
표	현	할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반	면	단
은	상	투	적	인	표	현	이	라	진	실	하	지	않
느	껴	질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10 모범 답안

	㉠	에	서	는	상	대	방	이	하	는	말	을	귀	기
울	여	주	의	깊	게	들	는	것	,	즉	경	청	하	하
기	를	강	조	하	고	있	다	.	그	리	고	㉡	에	서
상	대	방	이	하	는	말	을	신	중	하	게	판	단	하
가	려	들	는	것	이	필	요	하	다	는	것	을	강	조
고	있	다	.											

‘통’하는 국어 생활

(1) 해결의 열쇠, 독서

소유냐 존재냐_에리히 프롬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51~059쪽

- 01 (1) ○ (2) ○ (3) × (4) ○ (5) ○ 02 ① 03 ③
- 04 ② 05 (1) ○ (2) ○ (3) ○ (4) × (5) ○ 06 ④
- 07 ⑤ 08 ④ 09 (1) ○ (2) × (3) ○ (4) ○ (5) ○
- 10 ⑤ 11 ② 12 존재 양식
- 13 (1) ○ (2) ○ (3) ○ (4) × (5) ○ (6) ○ 14 ③
- 15 ⑤ 16 ④ 17 (1) ○ (2) ○ (3) ○ (4) ○ (5) × (6) ○
- 18 ① 19 ③ 20 ④ 21 불안

- 01 (3) 2에서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고 하였다.
- 02 소유와 존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부처, 예수, 에크하르트의 견해를 토대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03 ㉠의 입장을 가진 인물은 현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식, 즉 소유를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에 의해 사물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 04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는 소유를 증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은 자신을 열고 정신적인 부를 성취하려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 05 (4) 바쇼는 울타리 밑에 피어 있는 냉이꽃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 이는 자세히 관찰하는 행위이므로 무관심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 06 테니슨은 돌담에 핀 꽃을 보고 그것을 소유함(뿌리째 뽑아냄.)으로써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꽃의 죽음(파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07 화자는 꽃을 살려 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키려 하고 있다. 곧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소유와 존재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테니슨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소유욕이라는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바쇼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한 것은 아니다.
- 09 (2) 피테가 꽃을 꺾으려 하자 꽃이 속삭이며 생명의 소멸을 일깨워 주었다. 그로 인해 피테는 깨달음을 얻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다.

- 10 피테는 꽃을 의인화하여 감정을 부여하고 있다. 즉, 꽃을 사람처럼 여기고 시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다른 인물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1 피테는 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이겨 내고 꽃을 자신의 집 정원으로 옮겨 와 생명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으므로 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갖게 된다. 이는 곧 꽃을 소유하면서 존재하게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12 8에서 존재 양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13 (4) 소유에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영웅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영웅들에게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4 이 글은 인간의 일생을 관통하는 소유 양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반대 개념인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해 부처나 예수, 이야기 속 영웅들을 예로 들며 논지를 펼치고 있다.
- 15 ㉠과 같은 삶의 양식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것, 즉 토지, 가족,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영웅과 같은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한 E 씨가 가장 적절하다.
- 16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 17 (5) 16에서 존재 양식의 삶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존재 양식은 주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18 14에서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며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상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불안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 19 자신 외부의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소유 양식의 삶이다.
- 20 상실에 대한 본질적인 위험은 존재 양식의 삶을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유 양식의 삶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이로 인해 소유 양식의 삶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 21 15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유 양식의 삶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 02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에서 존재를 선택했다.
- 04 테니슨은 꽃을 소유하기 위하여 꽃을 뽑은 것이다.
- 06 바쇼와 괴테의 시에는 존재 양식이 나타난다.
- 07 현대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 09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것에 의존하므로 불안정하다.
- 12 병이나 고문, 그 밖의 강력한 외부적 제약은 안정감과 주체성을 위협한다.
- 14 존재 양식의 삶의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62~067쪽

- 1 ② 2 ⑤ 3 ③ 4 ③
- 5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다. / 물질을 인건보다 더 중시한다.
- 6 ③ 7 ④ 8 ② 9 존재 양식
- 10 자연을 소유함으로써 분석적으로 이해하려 함. 11 ①
- 12 ⑤ 13 ① 14 영웅

- 1 이 글은 소유와 존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은 증수필이다.
 [오답 해설] ① 시와 같은 운문 형식의 특징이다. ③ 설명하는 글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소설의 특징이다. ⑤ 극의 특징에 해당한다.
- 2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를 통해 필자가 '나'로 드러나며 자신이 깨달은 점을 직접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 4 [A]의 화자는 꽃을 소유하기 위하여 뿌리째 뽑아 꽃의 존재를 해체하였다.
- 6 (다)는 처음에는 꽃을 소유하려 했으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재하게 했다.
 [오답 해설] ①, ④ (가)는 신과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진리를 소유하고자, 꽃을 뿌리째 뽑아서 명상하고 있다. ② (나)는 꽃에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살펴보고만 있다. ⑤ (다)는 꽃을 꺾는 일이 꽃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뿌리째 뽑아 정원에 다시 심었다. 이는 지적 호기심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 7 꽃을 파내어 집에 옮겨 심는 행위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면서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화자의 문제 해결 방안이다.
- 8 <보기>에서 손이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은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순간 자체를 즐긴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그대로 두는 '꽃을 바라보는 것'에 가장 가깝다.

- 11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존재 양식이다. 나머지는 모두 소유 양식에 해당한다.
- 12 영웅 역시 소유를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하는 것이다.
- 13 소유 양식의 삶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항상 걱정한다. 하지만 그 위험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재산, 지위, 친구 등이다. 위험이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은 존재 양식이다.
 [오답 해설] ② 소유 양식의 삶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되므로 불안정하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68~075쪽

- 1 ④ 2 ① 3 ④ 4 ⑤ 5 ④
- 6 해설 참고 7 ⑤ 8 ② 9 ③ 10 ①
- 11 ② 12 ③ 13 해설 참고

- 1 이 글은 소유와 존재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드러난 증수필이므로 객관적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사변적'은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2 현대 사회는 존재보다는 소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더 중시한다.
- 3 바쇼의 시에 나타난 삶의 양식은 존재 양식이다. 돈이나 성적은 소유하는 대상이 되므로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중심을 두는 것이 존재 양식이다.
- 4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보다 생명을 중시한 ④는 꽃을 뿌리째 파내어 정원에 다시 심은 (다)이다. ⑤는 꽃을 가만히 바라보는 (나)이고, 이는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또한 꽃을 소유하여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한 것은 (가)이다.
- 5 꽃을 꺾으려 한 것은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물질 등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② 자신과 세계를 일치시킨 것은 꽃을 가만히 살펴본 (나)이다. ⑤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 것은 (가)이다.

6 모범 답안

(다)	는	꽃	을	소	유	하	기	위	해	생	명	을
해	친	(가)	와	달	리	꽃	을	죽	이	지	않	고
꽃	의	생	명	을	보	존	했	.	이	는	존	재
했	다	는	점	에	서	(나)	와	갈	지	만	,	가
히	바	라	보	기	만	한	(나)	와	달	리	뿌	리
째	파	내	어	자	신	의	정	원	에	심	어	소
기	도	했	.	죽	,	(다)	에	는	꽃	을	소	유
유	하	면	서	동	시	에	존	재	하	게	하	는
지	특	성	이	모	두	드	러	난	.			

- 7 <보기>의 필자는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달 뿐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지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난초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② 난초를 키운 경험을 통해 소유 양식의 삶이 집착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③ 소유하고 있는 난초에 대한 걱정으로 나그뉘길을 떠나지도 못하고 나갔다가 되돌아온 적도 많았다는 것을 통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난초를 친구에게 주고 난 뒤에야 집착이 사라지고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8 현대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9 내적인 나태, 즉 게으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존재 양식의 삶의 위험이다.

오답 해설 ② 소유 양식의 삶은 자신 외부의 것에 의존하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평가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은 소유 양식의 삶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10 소유 양식에 비해 위험이 적지만 내 자신 속에 위험이 존재하기는 한다.

오답 해설 ④ 병이나 고문,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정감과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⑤ 늘 상실의 위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는 소유 양식의 삶과 달리 존재 양식의 삶은 이러한 불안이 없으므로, 존재 양식의 삶은 소유 양식의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11 ㉠ ㄷ, ㄹ: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하므로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힘이 커진다. 또한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 ㄱ, ㄴ, ㄹ: 소유한 것은 사용할수록 감소되고 사라진다. 또한 소유한 것은 항상 상실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잘 보호받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된다.

12 청소년들의 분노와 무기력은 소유 양식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오답 해설 ② 경쟁 우주의 사회 구조,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는 청소년들이 성적에 집착하게 되는 원인이다.

13 **모범 답안**

소	유	양	식	의	삶	을	사	는	학	생	은	좋	은		
성	적	을	받	기	위	해	공	부	를	한	다	.	성	적	
이	낮	아	질	까	항	상	걱	정	하	고	두	려	위	하	며
낮	은	성	적	을	받	으면	패	배	감	에	빠	지	고		
고	통	받	는	다	.	반	면	존	재	양	식	의	삶	을	
사	는	학	생	은	공	부	를	통	해	자	아	를	성		
장	시	킨	다	.		따	라	서	성	적	에	대	한	걱	정
없	고	공	부	를	하	면	할	수	록	더	큰	만	족		
감	을	얻	게	된	다	.									

(2) 협력하는 의사소통

- ①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
- ②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79~087쪽

- 01 (1) ○ (2) ○ (3) × (4) ○ (5) ○
- 02 ⑤ 03 ③ 04 ⑤
- 05 (1) ○ (2) ○ (3) ○ (4) × (5) ○
- 06 ② 07 ④ 08 존중
- 09 (1) ○ (2) ○ (3) × (4) ○ (5) × (6) ○
- 10 ② 11 ③ 12 ②
- 13 (1) ○ (2) ○ (3) × (4) ○ (5) ○
- 14 ③ 15 ③ 16 ⑤
- 17 (1) ○ (2) ○ (3) × (4) ○ (5) ○
- 18 ⑤ 19 ⑤ 20 ③

- 01 (3) 2에서 듣기 과정에서는 숨겨진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서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 추론의 태도가 필요하다.
- 02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듣고 말하는 태도는 수시로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학생회 임원들이 토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 03 준언어적 표현에는 어조, 속도, 고저, 강약 등이 해당된다. 손자가 자신감 없는 어조로 말하고 있으므로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04 <보기>에서는 동생이 형의 발언에 대해 이해를 못 하다가 숨겨진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여 점검한 뒤, 조정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05 (4) 사례 ③은 누나가 동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동생도 누나의 말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06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점검하고 조정할 사항, 의사소통 참여자의 바람직한 태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07 대화의 상황으로 봤을 때 선배와 후배는 서로 협력적이지 않으며 배려심이 부족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배가 후배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도 부족해 보이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지도 않고 있다.
- 08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09 (3) ㉓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시작 단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5) ㉔ 아파트 대표는 ㉕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㉖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㉗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 10 이 글은 협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두 아파트 간의 테니스장 이용 문제에 대한 사례를 들어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빚어지는 갈등에 대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하였다. 음식점에서 메뉴 선택을 힘들어하는 손님의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이 아니므로 협상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12 ㉕ 아파트 대표는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13 (3)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계속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 14 조정 단계는 합의점을 모색해 가는 단계로,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제시된 대안들을 정리하며 최종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최종 단계인 해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15 ㉗ 아파트 대표와 ㉕ 아파트 대표는 테니스장 이용 문제에 대해 각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을 검토하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수용 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어느 정도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완책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16 ㉘은 ㉕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㉖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테니스장 이용에 대한 할애 비율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㉘에서 ㉖ 아파트 대표가 말한 새로운 제안에 대한 수용과 함께 보완책(추가 요구)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7 (3) ㉖ 아파트 주민들이 ㉕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㉕ 아파트 대표의 제안에 ㉖ 아파트 대표가 합의한 것이다.
- 18 ㉖ 아파트 대표는 ㉕ 아파트의 여가 시설 개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수용 인원을 30%로 늘린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㉕ 아파트 대표는 이를 수용하면서 ㉖ 아파트 주민들도 ㉕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양측이 서로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 19 해결 단계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단계이다. <보기>에서 형과 동생은 서로 시간대를 조정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는 제안에 대해 ㉘에서 합의하였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 20 '고수(固守)'는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킨다는 의미이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88쪽

- 01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 05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 08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 09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시작 단계이다.
- 12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 15 갈등 상황에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90~095쪽

1 ㉔	2 ㉕	3 ㉓	4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점검하고 쉬운 어휘로 바꾸어 조정하였다.	5 ㉘
6 ㉕	7 ㉕	8 ㉖: 목적, ㉘: 반응	9 상황에 맞게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병문안이라는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말하기가 필요했음을 깨닫고 있다.	10 ㉕
11 ㉔	12 ㉓	13 ㉕	14 상생	

- 1 말하기의 목적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말하기의 방식이나 내용을 조정하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2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청자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보기>에서 민서는 지은이 말한 내용을 표면적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아 달라는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숨겨진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고 있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 5 이 글의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하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발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발언 내용과 관련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태도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누나는 “개요도 몰라?”라고 하면서 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② 누나는 “아이, 귀찮게…….”라고 하면서 동생을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 ④ 동생은 “잘났어, 정말!”이라고 하면서 누나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⑤ 누나와 동생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6 주제를 바꾸면 된다는 것은 의사소통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임으로 적절한 태도를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7 ㉠은 동의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참여자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학생회장은 회의라는 공격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② 문화부장은 봉사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③ 봉사부장은 공격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⑤ 학생회장은 무엇에 동의하는지 불명확한 총무부장의 말에 대해 그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10 <보기>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보기>는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 아파트 대표의 기본 입장과,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 아파트 대표의 기본 입장이 나타나 있다. ②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 아파트 대표의 말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합니다만”이라는 ㉣ 아파트 대표의 말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점이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11 양측의 대안들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은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 아파트 주민들이 평일 낮 시간대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라는 ㉡ 아파트 대표의 해결 방안이 대해, ㉣ 아파트 대표는 테니스장 이용 시간을 평일 낮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지는 ㉣ 아파트 대표의 해결 방안이 대해 ㉡ 아파트 대표는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어 요금 체계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 ㉣ 아파트 대표는 ㉣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라는 ㉡ 아파트 대표의 제안을 검토하여 평일 낮 시간대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면 금지나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 아파트 대표는 예약 제도를 마련한다는 ㉡ 아파트 대표의 해결 방안을 수용하고, 수용 인원 할애 비율을 높여 달라며 해결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⑤ ㉡ 아파트 대표는 특정 시간대에 주민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 발생 이유를 언급하고 시간대를 나누어 사용하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2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한 것은 ㉡ 아파트 주민들이다.

13 협상 시에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96~101쪽

1 ①	2 ①	3 ③	4 해설 참고	5 ③
6 ③	7 ②	8 ①	9 ④	10 ⑤
11 ④	12 ②	13 해설 참고		

1 의사소통 과정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해 같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오답 해설 ④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거나 말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갈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①은 시험을 망친 것 같다는 화자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④ 화자의 말에 공감하며 반응하고 있다.

3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다른 참여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체육부장의 발언 중간에 끼어든 문화부장의 태도에 해당한다. ②, ④, ⑤ 회의 참여자가 아닌 사회자가 지켜야 할 태도이다.

4 모범 답안

문	화	부	장	은	봉	사	부	가	하	는	일	이	없	다
며	상	대	를	무	시	하	는	듯	한	태	도	를	보	이
고	있	다	.	또	한	체	육	부	장	의	말	을	중	간
에	끊	어	원	활	한	의	사	소	통	의	흐	름	을	방
해	하	고	있	다	.	따	라	서	문	화	부	장	은	상
방	을	배	려	하	는	태	도	가	부	족	하	다	고	블
수	있	다	.											

5 협상의 목표는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두 아파트 주민들 모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⑤ ㉣ 아파트 대표의 기본 입장으로, 문제 해결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6 ㉣ 아파트 대표는 요금 체계 이원화를 통해 ㉣ 아파트 주민의 수요를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7 ㉠은 조정 단계에서 ㉡ 아파트 대표가 제안한 첫 번째 해결 방안이다. 따라서 <보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 아파트 대표의 기본 입장이므로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8 ㉡ 아파트 대표가 요금 체계 이원화를 통한 효과에 대해 제기한 의문점을 ㉣ 아파트 대표가 풀고 있지는 않으며, 그 대안을 관철시키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②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지는 ㉣ 아파트 대표의 제안에, ㉡ 아파트 대표는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예약 제도를 시행하여 수용 인원을 할애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③ ㉡ 아파트 대표는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다는 근거를 들어 요금 체계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 아파트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 아파트 주민들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④ ㉣ 아파트 대표는 ㉡ 아파트 대표가 제안한 수용 인원 할애를 받아들이면서도 할애 비율을 20%보다 더 높이려고 노력한다. ⑤ ㉡ 아파트 대표는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 ㉣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제안했다가 ㉣ 아파트 주민들을 고려해 예약 제도를 실시하여 수용 인원을 할애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9 ㉗ 아파트의 기본 입장은 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㉗ 아파트 주민들은 ㉘ 아파트 단지의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㉘ 아파트 주민들은 ㉗ 아파트의 테니스장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㉓ 예약제 실시, ㉙ 아파트 주민에게 수용 인원 할애, ㉚ 아파트의 여가 시설 개방 등 조정 단계에서 나온 방안들이 반영되었다.

10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은 타협 가능성이 있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른 학생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1 대안을 검토하고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오답 해설 ㉡ 해결 단계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여 합의에 이르는 단계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한다.

12 동물원 운영권을 민간에서 정부로 옮기는 것은 양측 모두의 주장과는 상관없는 타협안이다.

오답 해설 ㉠ 동물원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아가고 일부 동물만 남기는 방안이므로 양측을 고려한 타협안이다.

13 모범 답안

동물권	응호지들의	주장은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동물들이	열악한	동물원에	감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

잘 읽고 잘 쓰는 법

(1) 똑똑하게 매체 읽기 매체 평가하며 읽기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07~109쪽

- 01 (1) ○ (2) × (3) ○ (4) × (5) ○ (6) ○
- 02 ㉡ 03 ㉡ 04 ㉡
- 05 ㉠: 라디오, 텔레비전, ㉡: 통신 매체
- 06 (1) ○ (2) ○ (3) × (4) ○ (5) ○
- 07 ㉡ 08 ㉡ 09 ㉡

01 (2) 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매체에는 필자의 주관적 관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광고에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의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였으므로 제품에 대한 사실만이 아니라 제작자의 주관성도 포함되어 있다.

02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의 사례를 들며, 많은 사람들이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가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믿는 통념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3 친구의 편지에서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이 아니다.

04 ㉠은 신문 사설의 표제에 해당한다.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늘’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3) ㉠은 필자의 주관적 관점이 들어 있는 신문 사설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07 ㉠에서는 국제 통화 기금 총재나 한국 개발 연구원 등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의 전망을 인용해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08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모습을 제시한 사진을 통해 고령자를 노동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9 현현할 수 있는 나이가 ‘69세’까지라는 점을 알려 주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을 뿐,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이미지와 함께 대상이 ‘학생’, ‘김 병장’, ‘박 과장’으로 바뀌지만 부모님과 함께 현현하지는 내용은 반복되면서 설득의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 ‘알고 계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인물에 어울리는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대상과 조화를 이루며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이미지 속 대상을 호명함으로써 주의를 집중시키고 대상과 같은 평범한 독자들에게 대한 설득 효과를 높이고 있다.

- 03 인터넷은 메시지를 쌍방향으로 전달하여 발신자와 수신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 05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에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 기사나 편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08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있는 인물이나 현장 등을 제시해야 한다.
- 09 시각적 요소는 이미지이고, 문구는 언어적 요소에 해당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 1 ⑤ 2 ④ 3 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들어 있을 수 있다. 4 ⑤ 5 ② 6 ④ 7 ⑤
- 8 표제 9 ① 10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의 전망을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11 ④ 12 ② 13 ⑤
- 14 ⑤ 15 해설 참고

- 1 뉴스에도 객관적인 사실 외에 편집자나 제작자의 관점이 들어 있으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편집자나 제작자에 따라 내용이나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 이 글은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다양한 매체들에는 특정 관점이나 의도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표현 방법의 효과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③ 매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지만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⑤ 매체에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 필자의 관점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 4 비판적 읽기는 필자의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따져 보는 것이다.
- 5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며,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⑤ 핵심 노동력이 줄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 6 최저 임금제는 고령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외국인 인적 자원을 유지하며 고령자의 생산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든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 7 '유치'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을 뜻한다.
- 8 이 글은 신문 사설로, ③은 표제에 해당한다.
- 12 신사고_민현식 | 정답 및 해설

- 9 이 글에는 창의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경제 성장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있다. ③ 고령자들의 생산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내용에 알맞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국제 통화 기금 총재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늬'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저성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11 부모님 중 '엄마'만 언급하여 성차별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나눔의 기쁨! 부모님과 함께해요.'를 '부모님과 함께해요 나눔의 기쁨!'으로 도치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12 이 광고에는 현열이 핵가족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학생에 어울리는 학교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현열은 69세까지'라는 문구를 통해 현열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④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해요.'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해 누구나 현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⑤ '나눔의 기쁨!'이라는 문구를 통해 현열이 나눔의 기회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참여하도록 '함께해요.'라고 유도하고 있다.

- 13 '69세까지'라는 내용은 현열이 가능한 나이를 알리는 정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4 <보기>의 ○○ 자외선 차단제가 필자가 만든 제품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자외선 차단제들을 다 써 봤다는 것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② 자외선을 100%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거나 아무리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도 끄떡없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다. ③ 객관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자신이 써 보니 좋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시중의 자외선 차단제들은 전부 별로고 해당 제품이 독보적으로 좋다고 하면서 다른 제품들을 폄하하고 있다.

15 오답 답안

매	체	에	는	필	자	나	편	집	자	의	특	정	한	관
점	이	들	어	있	을	수	있	다	.	그	관	점	은	
한	쪽	의		이	의	만	을	대	변	하	거	나	편	견
겨	있	을		수	도	있	다	.	또	한	표	현	방	법
이	적	절	하	지	않	을	경	우	전	달	내	용	이	
왜	곡	되	거	나	효	과	가	없	을	수	있	다	.	따
라	서	매	체	는	비	판	적	으	로	평	가	하	며	읽
아	한	다	.											어



소단원 심화 평가

- 1 ⑤ 2 ⑤ 3 ⑤ 4 ② 5 ④
- 6 ② 7 ⑤ 8 ② 9 ⑤ 10 ⑤
- 11 ③ 12 ③ 13 이미지 속 대상과 같은 평범한 독자들에게 대한 설득 효과를 강화한다. 14 해설 참고

- 1 표제는 신문에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라디오 뉴스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③ 광고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사실이 아닌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2 텔레비전 뉴스도 신문 기사와 마찬가지로 편집자의 관점이 들어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신문과 라디오는 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3 텔레비전은 영상, 소리,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므로 수신자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④ 텔레비전은 시각적 영상과 소리를 통해 실제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4 관점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전문가, 관련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③ 정확성을 판단하며 읽는 방법이다. ④, ⑤ 공정성을 판단하며 읽는 방법이다.

5 ⑥는 가상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③와 ⑥는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 ⑥의 경우에는 문자 언어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⑤ ③와 ⑥는 모두 필자의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 이념이 드러난다.

6 본문은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되도록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내용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표제와 부제는 일치된 입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④ 부제는 표제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⑤ 표제는 본문을 압축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7 고령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일하고 있는 여성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도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9 고령화의 속도를 늦춰야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고령화가 경제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오답 해설 ①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라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②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늪’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더 나아가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러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인구 고령화가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다.

10 저성장에 관한 내용은 수정한 표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삭제하면 안 된다.

11 학생, 군인, 회사원으로 대표되는 평범한 사람을 내세워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12 부모님과 함께 현혈하자는 취지이지만 엄마를 모시고 오라는 말만 하여 양육을 엄마의 일로만 보는 성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엄마와 아빠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빠는 빠져 있다. ④ 양육을 엄마의 일로만 보는 것이 문제이지, 여성 전체를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학생, 군인, 회사원은 다양한 나이의 대표적인 신분을 나타낸 것으로, 차별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14 모범 답안

<	보	기	1	>	과	<	보	기	2	>	는	모	두
'	청	계	천	노	점	상	철	거	'	라	는	하	나
건	을	다	루	고	있	지	만	내	용	의	초	점	은
르	다	.		<	보	기	1	>	은	청	계	천	의
을	철	거	한	후	의	공	정	적	인	전	망	을	보
주	고	있	지	만	,	<	보	기	2	>	는	노	점
철	거	로	인	한	상	인	들	의	반	발	을	드	러
이	처	럼	하	나	의	사	건	이	라	도	필	자	에
서	관	점	이	다	르	기	때	문	에	비	판	적	인
도	로	글	을	읽	어	야	한	다	.				

(2) 글쓰기의 정석

- ①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쓰기 /
- ② 책임감 있게 쓰기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27~131쪽

- 01 (1) ○ (2) ○ (3) ○ (4) × (5) ○ (6) ○
 02 ⑤ 03 ① 04 ④
 05 (1) ○ (2) × (3) ○ (4) ○ (5) ○ (6) ○
 06 ⑤ 07 ⑤ 08 ⑤
 09 (1) × (2) ○ (3) ○ (4) ○ (5) ○ (6) ○
 10 ⑤ 11 ④ 12 ②

- 01 (4) 고쳐쓰기를 할 때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순서를 밝으며 글을 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고 하였다.
- 02 이 글은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고쳐쓰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 03 이 글은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쓰기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설명한 글로,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제 자신의 쓰기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글이다.
- 04 <보기>에서 독자는 학교 친구들이므로 독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잔돈(동전)을 기부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05 (2) 민수는 내용 조직하기에서 '중간 1'에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 06 민수의 점검과 조정 과정을 보면 제목 수정, 중간 1의 내용 추가, 시각 자료 추가, 마지막 문장 삭제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끝부분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다는 점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7 독도의 기후적 특징, 기온, 강수량과 강우 일수, 식물, 해양 생물, 조류 등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철새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 08 고쳐쓰기를 할 때에도 쓰기 맥락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 09 (1)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을 쓴 사람은 지수가 아니라 철민이다. 지수는 블로그에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썼다.
- 10 가에서 지수는 맛집 정보에 대해 과장된 글을 썼다. 인터넷은 파급력이 매우 크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 11 수필을 창작하면서 누구나 경험했을 만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경험한 일이라도 자신의 관점에서 창작되면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출처 표기를 할 때에는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한 쪽 등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 12 출처를 밝힐 때에는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한 쪽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32쪽

- 02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상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 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07 주제, 목적, 독자가 같더라도 매체가 달라지면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 08 독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달라진 독자의 수준, 요구, 관심사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글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
- 12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34~139쪽

- 1 ③ 2 ⑤ 3 쓰기 맥락 4 ④ 5 ②
 6 ③ 7 ④ 8 ④
 9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10 ㉠: 설득, ㉡: 우리 학교 재학생 11 ④ 12 ②
 13 ④ 14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썼다.

- 1 쓰기 과정에서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 새로 내용을 구상하고 수정할 수 있다.
- 2 예상 독자가 아닌, 필자가 주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 4 '독도의 행정 구역'은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⑤ '중간' 부분에서 '1. 독도의 기후'에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상한 후 자료를 수집한다. 표현 방법을 정하는 것은 초고 쓰기에 해당한다.
- 6 독도의 행정 구역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4문단에 통해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 나타나 있다. ④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3문단에 나타나 있다.

7 염분이 많은 해풍 때문에 독도에는 육지보다 적은 종류의 식물이 있지만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의 식물들이 자란다.

오답 해설 ① 독도는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운 날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가장 더운 날에도 24℃를 넘지 않는다. ② 독도는 1년 중 85%가 흐리거나 눈, 비가 내린다. ③ 독도는 철새들의 습터로, 꿩이갈매기, 습새, 바다제비, 황조롱이 등의 조류가 관찰되며 미역,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있다. 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독특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터전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8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의 나이,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초등학생인 독자를 고려해 어려운 어휘를 쉽게 바꾸거나 뜻풀이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③ 예상 독자와 상관없이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⑤ 유행어나 줄임말은 그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1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 역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들은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③ 블로그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소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

오답 해설 ⑤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많은 저작물이 만들어져 문화가 발전한다.

1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방법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쓰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글이나 자료 등을 활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힌 후 활용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책임감 있게 글을 쓴 것이 아니다.

3 매체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므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필자 자신의 관심사나 수준이 아니라 예상 독자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게 써야 한다. ②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정해야 한다. ④ 글의 목적과 상관없이 고쳐쓰기는 모든 글에 필요한 과정이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좋은 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쓰기 맥락에 맞게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

4 글을 쓸 때에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 쓰기 맥락에 맞는 글을 써야 한다. 점검과 조정을 통해 쓰기 맥락에 맞는 글을 쓸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① 글의 주제와 목적 외에 독자와 매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 아무리 능숙한 필자라도 한 번에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는 없다. 점검과 조정을 통한 고쳐쓰기 과정이 필요하다. ④ 같은 소재의 글이라도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점검과 조정은 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5 ㉠은 내용 조직하기, ㉡은 고쳐쓰기, ㉢은 계획하기, ㉣은 초고 쓰기, ㉤은 내용 생성하기이다. 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6 이 글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매체를 지역 신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교실 사진은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내용과 관련된 교복 수거함 사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목적을 정보 전달에서 설득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우리 학교 재학생을 독자로 설정하였으므로 졸업한 선배들에게 장롱 속에 묵혀 둔 교복을 교복 수거함에 넣어 달라는 내용은 독자에 맞지 않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수익금을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해야 한다는 내용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지는 주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7 이 글에 질문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독도에 사는 식물(꿩이갈매기, 섬장대, 곰솔 등)과 해양 생물(오징어, 도루묵, 조피볼락 등의 어류, 홍합, 전복 등의 패류, 미역,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 조류(꿩이갈매기, 습새, 바다제비, 황조롱이 등)의 예를 다양하게 들고 있다. ③ 연평균 기온 약 12℃, 연평균 강수량 약 1,240mm, 강우 일수 150일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④ 독도를 '소중한 습터', '자연 생태계의 보고' 등으로 비유하여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⑤ 독도의 기후적 특징, 기온, 강수량과 강우 일수, 식물, 해양 생물, 조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나열하여 독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8 이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므로 주장하는 바가 잘 드러나 있는가는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9 매체가 변화할 경우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주제, 목적, 독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10 이 글은 초고이고, <보기>는 개요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요인 <보기>를 수정하면 그에 따라 초고의 내용도 수정된다.

오답 해설 ① 개요인 <보기>를 작성한 이후에 초고인 이 글을 작성한다. ② <보기>를 토대로 하지 않아도 이 글을 수정할 수 있다. 개요에 없는 내용이라도 초고를 쓰면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③ <보기>는 이 글에 담을 내용을 배치하여 구성한 것이다. ⑤ 이 글을 작성한 이후에라도 <보기>를 수정할 수 있다. 쓰기 과정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으므로 초고를 쓴 다음에라도 개요를 수정할 수 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40~147쪽

1 ②	2 ③	3 ③	4 ③	5 ③
6 ①	7 ①	8 ⑤	9 ⑤	10 ④
11 해설 참고	12 ①	13 해설 참고	14 ②	15 ⑤

1 이 글은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완성도 높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쓰기 과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은 설명문이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쓰기 맥락의 요소를 소개하고 있으나 중요도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쓰기 맥락은 중요도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는다.

2 필자가 아닌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글의 목적이 설득, 정보 전달, 친교 및 정서 표현, 자기 성찰, 학습 등에서 무엇이 해당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② 글을 쓰는 매체의 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④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이다. ⑤ 독자의 연령과 관심사, 가치관 등 예상 독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11 모범 답안

글	을	쓸	때	에	는	개	요	를	잘	짜	더	라	도
쓰	기	맥	락	에	맞	지	않	거	나	처	음	의	생
과	달	라	지	는	경	우	가	있	다	.	따	라	서
성	도	있	는	글	을	쓰	기	위	해	서	는	고	쳐
기	단	계	를	거	치	면	서	글	을	수	정	하	는
정	이	필	요	하	다	.	이	처	럼	쓰	는	글	을
읽	고	수	정	하	는	과	정	에	서	글	을	쓰	는
법	을	깨	달	을	수	있	다	.					

12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어긋나지만 ㉠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②, ④ 내용을 과장해서 쓴 것에 해당한다. ③, 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쓴 것에 해당한다.

13 모범 답안

인	터	넷	은	불	특	징	다	수	가	이	용	할	수
있	고	정	보	의	확	산	이	매	우	빨	라	파	급
이	크	다	.	따	라	서	과	장	,	축	소	,	왜
된	정	보	를	인	터	넷	에	쓸	경	우	,	매	우
빠	르	게	거	짓	정	보	가	퍼	질	수	있	다	.
그	러	므	로	인	터	넷	매	체	에	글	을	쓸	때
는	책	임	감	을	가	지	고	신	중	하	게	써	야
다	.												

14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게시하는 경우는 개인적 윤리에 어긋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5 독자의 흥미는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와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④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관련이 있다. ②, ③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관련이 있다.

1회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48~153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③	07 ①	08 ①		
09 ㉠: 문화 자산, 인구 자산 / ㉡: 경제 자산, 인구 자산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③	
15 (1) 상다리가 휘어지다. (2) 겸양 표현에 칭찬으로 화답한다.				

01 중세 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ㄱ’ ‘ㄴ’, ‘ㅁ’, ‘ㅇ’, ‘ㅂ’과 같은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고유어가 사용되었다. ③ (가)에서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가 있었다고 하였다. ④ 자음은 ‘ㅂ(순경을 비음), ㅅ(반치음)’ 등이, 모음은 ‘·(아래아)’ 등이 있었다. ⑤ ‘뽕(뽕), 뽕(뽕), 뽕(뽕)’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02 ‘말쌈’은 ‘말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음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의 결합으로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② ‘스’ ‘다’의 받침 ‘ㅌ’가 필종성법에 따라 ‘ㅅ’이 된 것이다. ③ ‘불쌍히, 가엾게’에서 ‘여쁘게’로 의미가 변했다. ⑤ ‘쓰’에 명사형 어미 ‘-움’과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03 동국정운식 표기는 우리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현하였다. ② ‘놈+이(주격 조사)’를 이어 적기해서 ‘노미’로 표기한 것이다. ④ ‘中(中國) 국에 달아’의 현대어 풀이가 ‘중국과 달라’인 것으로 보아 ‘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04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펼치지 못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 ②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를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하였다. ③ 한자는 우리말과 달라서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05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고,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② ‘뽕’ 등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말쌈’은 ‘말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⑤ ‘뽕’은 ‘쓰’에 명사형 어미 ‘-움’이 결합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쓰’에 ‘-ㅁ’이 결합해 ‘쓰음’으로 쓴다.

06 ‘하느니’는 ‘맏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불휘’는 반모음 ‘ㅟ’로 끝났으므로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② ‘기쁜’은 ‘김+--은’, ‘므른’은 ‘믈+은’으로 이어 적기의 예이다. ④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ㄷ’이 ‘ㅈ’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다. ⑤ ‘남근’은 ‘남+은’으로 ‘나모’는 ‘ㄱ’이 덧생기는 ‘ㄱ’ 덧생김 체언’에 해당한다.

07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②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ㅅ(반치음)’이 사용되었다. ③ ‘하’는 높임의 호격 조사이다. ④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⑤ ‘우하’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것이다.

08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경제 자산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다. ③ 정치 자산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다. ④ 문화 자산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다. ⑤ 인구 자산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다.

09 ㉠: 우리나라 노래(문화 자산), 한국어 사용 인구의 증가(인구 자산) / ㉡: 한국 기업(경제 자산), 한국어 사용 인구의 증가(인구 자산)

10 아무리 좋고 선량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할 때 성난 얼굴에 큰 소리를 지르면 듣는 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말이 너무 가벼우면 위의를 잃게 되고, 너무 무거우면 거만한 것처럼 보인다.

11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때 초설(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로지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① 말이 많으면 지루하고 번거로워서 듣는 이가 좋아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허물이나 약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③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거짓과 참을 가려들어야지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된다. ④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때 초설을 해서는 안 된다.

12 ㉠의 내용은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 ㉣, ㉤이다.

오답 해설 ㉡: 마음속으로만 애매한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13 (가)의 남학생의 말하기 방식보다 (나)의 여자의 말하기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말하기 방식은 시대나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것이지 더 바람직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남학생은 거울 앞에서 연습할 때와는 달리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는 머뭇거리면서 준비했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② (나)의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사귀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④, ⑤ 담화 관습은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변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사랑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소극적으로 표현한 데 반해 오늘날에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14 주인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계 요리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입에나 맞으실지 모르겠어요.”처럼 자신이 한 일이나 능력을 겸손하게 표현(겸양의 표현)하고 있다.

15 ‘상다리가 휘어지다.’는 ‘상에 음식을 매우 많이 차려 놓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구이다. 손님들은 “정말 맛있어요. 솜씨가 대단하길요.”라고 말하며 주인의 겸양 표현에 대해 칭찬으로 화답하고 있다.

2회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54~159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자연을 소유하지만 그 존재를 훼손하지 않음. 06 ④
 07 ④ 08 ③ 09 해설 참고 10 ④ 11 ②
 12 ⑤ 13 ⑤ 14 ⑤
 15 ㉠: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 ㉡: 테니스장 수용 인원의 30%를 할애받게

01 바쇼와 괴테는 모두 살아 있는 꽃을 죽이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꽃을 세계로 보고 그것을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괴테가 아니라 바쇼이다. ②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한 것은 테니스이며 바쇼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 ③ 테니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연과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꽃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은 괴테이다.

02 소유 양식의 삶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존재 양식의 삶은 잃어버릴 것이 없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나 자신에 있고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안정감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03 <보기>에서 손은 아름다운 순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고 있다. 그를 통해 어떤 존재(순간)에 대한 각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 손은 아름다운 순간을 즐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바쇼의 견해와 일치한다.

오답 해설 ③ 다른 사람에게 존재 양식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임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⑤ 손의 태도 역시 존재 양식의 삶에 해당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친 후에 즐기는 것이 존재 양식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4 꽃에 대한 소유욕은 다음 행인 ‘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에 드러나 있다.

06 화자의 의도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화자의 배경지식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07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며 듣고 있는지는 말하기 과정의 점검 사항이 아니라 듣기 과정의 점검 사항이다.

오답 해설 ⑤ 목소리의 어조와 크기, 손짓이나 표정 등은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말하기 과정에서는 언어적 표현 외에도 이러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조정해야 한다.

08 개요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동생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해당한다.

09 모범 답안

듣	기	과	정	에	서	화
자	의	의	도	를	제	대
파	악	하	지	못	했	을
점	검	하	고	,	화	자
말	에	숨	겨	진	의	미
추	론	해	서	조	정	하
						였다.

10 학생회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참여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문화부장이 체육부장의 말을 끊고 발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 역할을 맡고 있는 학생회장이 나서서 발언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 ② 봉사부가 축제 때 딱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은 봉사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총무부장의 동의한다는 발언은 문화부장의 말과 봉사부장의 말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가 불명확하다.

11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⑤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 갈등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

13 두 아파트 대표 모두 갈등 상황을 해결하여 두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이 원하는 바이다.

오답 해설 ① 두 대표 모두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② ④ 아파트 대표가 이용 요금 인상을 제안했다. ③ ⑦ 아파트 대표는 평일 낮 시간대 외에 ④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테니스장 예약 수용 인원의 할애 비율을 높여 달라는 조건으로 ④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

14 ④ 아파트 주민들의 ⑦ 아파트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⑦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힘들어져 불만이 생긴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오답 해설 ① ④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⑦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이 생긴 것이지, ⑦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자신들만 이용하기를 원해서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니다. ② ④ 아파트 주민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를 유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갈등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었으며 이로 인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⑦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다. ③ ④ 아파트 주민들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 있지는 않다. ④ ④ 아파트 주민들이 지불하는 요금에 대해 ⑦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3회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60~163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인터넷
06 ④	07 ②	08 표제, 본문, 사진		09 ⑤
10 ②	11 주제, 목적, 독자, 매체			
12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다.		13 ⑤	14 ②	
15 해설 참고				

01 통신 매체에서 대중은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므로 대중들도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영상, 문자, 음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청각 모두에 호소한다. ②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살아간다.

02 누리집은 통신 매체로,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은 모두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03 매체에 담긴 정보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무조건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타당성과 공정성, 정확성과 적절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③ 주체적으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4 책, 잡지, 신문, 포스터는 인쇄 매체이고 전자 우편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므로 통신 매체에 해당한다.

06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므로 경제 활동의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07 ㉠ 이 글은 신문 사설로,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필자의 의도나 관점이 들어 있기도 하다. ㉡ 이 글에서는 사진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실재보다 과장된 수치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어떤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언급하는 것 역시 실제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실에 기반해 균형 있게 써야 한다. 이 글은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09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보다 필자의 주관성이 더 잘 나타난다.

10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글 전체 수준(㉠) - 문단 수준(㉡) - 문장 수준(㉢) - 단어 수준(㉣)으로 순서를 밝아 나가야 한다.

13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독도 주변 해역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독도는 1년 중 85%가 흐리거나 눈, 비가 내려 다른 지역에 비해 습도가 높다. ② 독도는 염분이 많은 강한 해풍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③ 독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육지의 식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 준다. ④ 독도는 이동 중인 철새들의 쉼터이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다.

14 이 글은 독도의 기후와 생태에 관한 설명문이다. ㉠은 이러한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15 모범 답안

	인	터	넷		매	체	는	파
급	력	이		매	우		크	기
때	문	에		거	짓	되	거	나
잘	못	된		정	보	를		쓰
피	해	가		발	생	할	수	
있	다	.		따	라	서	지	수
는		사	실	이		아	닌	내
용	을		쓰	거	나		과	장
지		말	고		진	술	하	게
써	서		쓰	기		윤	리	를
지	켜	야		한	다	.		

- 01 ① 02 ②
 03 현대 국어는 끊어 작가를 하지만 중세 국어는 이어 작가를 한다.
 04 ⑤ 05 ② 06 ① 07 ④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1) 소유 양식 (2) 존재 양식
 13 ③ 14 ③ 15 ① 16 ② 17 해설 참고
 18 ② 19 ② 20 ④ 21 ① 22 ④
 23 ② 24 ① 25 ①

01 ‘oo’은 쌍이음으로,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쓰던 옛 글자이다. 어두 자음군이 쓰인 단어는 ‘쁘-들’, ‘뿌-페’ 등이다.

02 ‘제’는 ‘저+ㅣ’로, 현대어로 ‘자기’의로 풀이되므로 ‘ㅣ’는 관형격 조사이다. ‘내’는 ‘나+ㅣ’로, 현대어로 ‘내가’로 풀이되므로 ‘ㅣ’는 주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중통國語’는 ‘중국어’로 풀이되므로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③ ‘서르’는 오늘날의 ‘서로’와 달리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진 형태이다. ④ ‘퍼디’는 오늘날의 ‘퍼지’와 달리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형태이다. ⑤ ‘니르고저, 니겨’는 오늘날 ‘이르고저, 익혀’와 달리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

04 ㄱ. 어간 ‘묻-’의 말음이 ‘ㄷ’이므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좁-’이 사용되어야 하며 뒤의 어미 ‘-고’가 자음으로 시작되므로 순경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묻좁고’가 된다. ㄴ.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여기서는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쭙었기 때문에 ‘세존의 안부’가 객체 높임의 대상이다.

05 한국어는 2007년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총회에서 국제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 공개어 열 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되었으므로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번역어로 한국어를 넣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는 인구 자산, 경제 자산, 정치 자산, 문화 자산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자산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문화 자산이 아니라 인구 자산과 관련이 있다. ④ 국제 연합의 6대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이다. ⑤ 민주주의의 지수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다섯 개 분야로 평가하여 산출한다. 경제 규모는 경제 자산과 관련이 있다.

06 한국어의 사용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12위이고 일본어는 사용 인구가 1억 명이 넘어 10위 안에 든다고 하였으므로 한국어의 사용 인구가 일본어보다 높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⑤ 우리나라는 세계 유산이 열두 개, 세계 기록 유산이 열세 개가 등재되어 있으며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번역어로 사용해야 하는 국제 공개어 열 개 언어 중 하나로 채택되어 문화 자산이 높다. ③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경제 자산에 해당한다. ④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07 (가)의 필자는 말을 삼가야 한다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으나, (나)의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필자는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나간다.’, ‘입이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와 같이 옛말을 인용하여 말을 삼가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②, ③ (나)의 여자는 남자에게 시귀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⑤ (가)의 필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담화 관습을 따르고 있으며, (나)의 여자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담화 관습을 따르고 있으므로 (가)와 (나)를 통해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담화 관습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08 ㉠이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하였으므로 ㉠에 들어갈 말은 ‘말을 적게 하라(조심하라)’는 의미의 ㄱ, ㄷ, ㄹ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ㄷ.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09 ‘잔디를 밟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④ ‘해요체’를 쓴다고 해서 완곡어법은 아니다. 완곡어법의 형태로 고친다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된다. ⑤ 여기에서 ‘아파요’라는 표현은 자신의 마음이 슬픈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10 존재 양식의 삶과 소유 양식의 삶 모두 위험은 있다. 존재 양식의 유일한 위험은 자신 속에 있으며, 소유 양식의 위험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⑤ ㉠과 ㉡이 바뀌어야 한다.

11 <보기>가, 소유하는 것이 꽃을 죽이는 것임을 깨달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테니스의 경험을 토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지적 호기심보다 생명의 힘을 존중하여 꽃을 꺾지 않고 뿌리째 파내어 옮겨 심은 것이다. ② <보기>는 처음에 꽃을 꺾으려 했는데, 이는 테니스처럼 꽃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다. ③ <보기>와 바소는 둘 다 꽃을 살아 있게 하였으므로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⑤ <보기>는 꽃을 소유하면서도 존재하게 하였고, 테니스는 꽃을 뽑아 소유하고자 하였으며, 바소는 단지 꽃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였다.

13 (가)의 누나는 동생에게 “아이, 귀찮게…….”, “개요도 몰라?” 등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으며 동생도 누나의 말에 화난 표정으로 “잘났어, 정말!”이라고 답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할아버지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나)의 누나와 동생은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있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지 못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④ (가)의 할아버지는 대화 상대인 손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으므로 대화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 반면 (나)의 누나는 대화 상대인 동생을 배려하지 않고 동생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⑤ (가)의 손자는 화자인 할아버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고 있지 않다. (나)의 동생 또한 화자인 누나의 말에 공감하고 있지 않다.

14 (가)에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전철’이라는 어휘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철을 밟지 않도록”을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이라고 고쳐서 말하고 있다. 이는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점검하여 쉬운 어휘로 바꾸어 조정한 것이다.

15 ㉠은 ㉡ 아파트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 아파트 주민들이 늘면서 ㉡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 아파트에서 내놓은 기본 입장이다. 뒤에 이어지는 “저희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라는 ㉣ 아파트 대표의 말을 통해, ㉣ 아파트 주민들이 공짜로 테니스장을 이용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 아파트 대표도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③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문제가 발생함을 밝히고 이에 따라 ㉣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이용하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는 ㉣ 아파트 대표의 대안에 대해 두 아파트가 매우 인접해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⑤ 예약 제도를 시행하여 ㉣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정 인원을 할애하겠다는 ㉡ 아파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대신 할애 비율을 높여 달라는 보완책을 추가하고 있다.

16 [A]는, 평일 낮 시간대로 테니스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면 금지나 다를 바 없다며 ㉡ 아파트 대표의 제안을 반박하고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 아파트 대표의 제안에 대해 ㉣ 아파트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한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③ ㉡ 아파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④ ㉡ 아파트 대표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⑤ ㉡ 아파트 대표의 제안에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17 모범 답안

㉡	아	파	트	주	민	들
은	㉣	아	파	트	단	지
내	의	여	가	시	설	을
자	유	료	계	이	용	할
수	있	게	되	었	고	,
㉣						
아	파	트	주	민	들	은
㉡						
아	파	트	단	지	내	의
테	니	스	장	수	용	인
원	의	30	%	를	할	애
받	게	되	었	다	.	

18 매체를 읽을 때는 필자의 관점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19 기자나 편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20 ㄱ. 표제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본문의 문제 해결 방안은 경제에 미치는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문제 해결 방안이 일치하지 않는다. ㄴ. 한국 개발 연구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전망을 인용하고 있다. ㄷ. ‘늘’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저성장의 심각성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ㄷ.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자를 노동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1 ‘알고 계셨나요?’와 같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69세’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혈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현혈을 할 것을 설득하는 공익 광고이다.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외국과의 비교나 현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장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22 이 글도 <보기>와 마찬가지로 끝 부분인 ‘이렇게 독도는 연중은 난 다습한 ~ 우뚝 자리 잡게 된 것이다.’에서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독도가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보기>와 다르게 제목을 수정하였다. ② 이 글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한 독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이다. 이 부분은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는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이 글에는 <보기>의 '중간 2'에서 '독도의 조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보기>에서 '독도의 해양 생물'에 해당하는 5문단 뒤에 '독도의 조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⑤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인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보기>의 '끝'의 내용과 맞지 않고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23** 가. 이 글은 독도의 기후와 생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이 독도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다. 이 글의 '처음' 부분에는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크다는 독도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중간' 부분에서 다음 내용인 '독도의 기후와 생태'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나. 이 글에는 '독도의 행정 구역'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글의 주제인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다.'를 고려할 때 '독도의 행정 구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르. 설의적 표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방법으로, 이 글에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24** (가)는 과장 정보를 담은 글의 위험성과 인터넷상 글의 파급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지수는 정보를 과장하여 인터넷에 올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 (나)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철민은 남의 글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쓰기 윤리를 지켜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⑤ 맞는 내용이지만 (가)와 (나)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인터넷 상에 쓴 글이라도 고쳐쓰기 과정은 필요하다. ④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자신이 창작한 작품만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

- 25**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나)를 읽고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저작권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으로 적절하다. ③ 저작권법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으로 적절하다. ④ 글을 쓸 때에 출처를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미술이나 음악 작품의 출처 표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으로 적절하다. 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을 뿐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구체적 사례는 질문으로 적절하다.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resembling a dashed line, spaced evenly down the page to provide a guide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